

기술·가정교과 내의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에 대한 수업운영실태 및 교과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lassroom Operations and Adequacy of Curriculum Regarding
“Clothes-making and Reuse” in the Subject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 Targeting Home Economics Teachers in Middle Schools -

중앙대학교 가정교육전공
석사 김주경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오경화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Graduates : Ju Kyung Kim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 Kyung Wha Oh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materials that would enable students who take courses in the subject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o take the knowledge and technological skills they learn in the classroom and apply them to real life situations and to nurture their thinking power and creativity.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a survey was conducted on 217 home economics teachers at 129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assess their classroom operations and the adequacy of the curriculum regarding “clothes-making and reuse.”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schools surveyed have only one classroom for home economics and that a majority of them are cooking rooms. The most preferred place to practice making clothes was found to be the classroom. In addition, the use of teaching aids pertaining to clothes-making are lacking or in poor shape.

Furthermore, analysis of the curriculum regarding “clothes-making and reuse” showed that most of the students use kits that contain materials for making clothes, due to a lack of practice hours. Most teachers thought that this section was appropriate for the school curriculum. In the more detailed categories, the students’ ability to use sewing machines was the lowest, while the ability to sew by hand was selected as the most useful and most appropriate for real life situations.

주제어(Key Words): 기술·가정(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옷 만들기과 재활용(Clothes-making and Reuse), 수업운영실태(Classroom Operations), 교과내용의 적절성(Adequacy of Curriculum)

I. 서론

기술·가정교과는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교과로서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 기술·가정 교과는 21세기를 살아갈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교과이다(교육부, 1997).

이와 같이 가정과 교육은 일을 통한 직접적인 실천 경험을 중요시하고, 실험과 실습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시키거나 발견하게 한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은 기초적인 이론 교육과 실험·실습을 통해 실제로 가정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실기교육이 병행되어야 가정과 본래의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장정진, 윤인경, 1992), 실습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교과서의 실습내용이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가정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기술·가정교과 내용은 학습자의 현실 생활과 연계되어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교사는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험·실습환경을 만들어 사고력과 창의성 육성을 위한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가정교과의 실험·실습이 비판적, 창의적, 실천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기술·가정교과의 실험·실습 운영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 이 중 6차 교육과정의 기술과 가정이 독립교과로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수업시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실험·실습의 횟수와 시간 할당이 더 어려워졌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교육현장에서 입시중심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론 중심 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실습을 회피하는 경향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학습자는 실습 경험이 충분하지 못해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교과에 대한 흥미와 실

생활의 활용 동기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실습과 관련된 예산 및 시설부족 등의 문제로 학교현장에서 실습 교육 자체가 소홀히 되거나 단순 기능중심의 실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활용도 및 교과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송지선, 두경자, 홍희영, 2006).

가정교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의생활 영역의 실험·실습 단원에 대한 관심도, 흥미도, 필요도, 활용도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의복제작과 재봉틀 다루기를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했으며, 필요도와 활용도가 낮은 결과를 보인다(박일록, 이은희, 2003; 손진숙, 2004; 신동순, 김상희, 오화자, 정효숙, 정혜경, 1997). 그리고 의생활 분야에서 대부분의 만들기과 뜨기 등의 실습내용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낮은 요구도를 보이며(성화경, 1994), 여러 연구에서 의복구성단원이 어렵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수업적용 시 어려움을 갖는다는 견해(강혜정, 김용숙, 1992; 강미향, 2005)를 보여,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어려움을 갖는 영역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 관련 연구에서는 전체 의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가 빈번해왔다. 그에 반해 의생활 영역 실습단원에 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선행되어진 연구들에서는 실습실의 확충과 수업시수의 부족에 따른 수업방법의 연구와 개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교과 내용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루지 않고 있다.

2007년 2월에 고시된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교과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의 내용체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특히, 수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 실습단원의 수업운영실태와 교과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은 교과서의 개편에 앞서 교과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에서의 실습단원인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을 대상으로 실습 수업 시행 현황을 파악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내용 적절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실습시행 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생활에 맞는 실천교과가 되기 위해 교과 내용상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 내용체계의 확립과 차기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서 집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을 위한 실습실 및 교구 보유현황과 활용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기술·가정교과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수업운영실태는 어떠한가?
- 셋째, 기술·가정교과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적절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이 포함되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175개교의 가정과 교사 295명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129개교에서 224부(75.9%)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통계 처리가 가능한 217부(73.6%)의 설문지를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가 문항을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예비 설문지를 작성하여 2006년 12월 27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 중학교 가정과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와 교사의 면담을 통해 미비한 점은 수정·보완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마쳤으며, 본 조사는 2007년 3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구분	N(%)	
학교소재지	서울 117 (53.9)	성별	남 2 (0.9)	
	경기 100 (46.1)		여 215 (99.1)	
학교설립 형태	국·공립 173 (79.7)	담당영역	가정 130 (59.9)	
	사립 44 (20.3)		기술·가정 87 (40.1)	
학교유형	남학교 23 (10.6)	담당 학급 수	10학급 미만 77 (35.5)	
	여학교 26 (12.0)		10~19학급 125 (57.6)	
	남녀공학 168 (77.4)		20학급 이상 15 (6.9)	
학급수	20학급 이하 25 (11.5)	교직경력	3년 미만 22 (10.1)	
	21~30학급 58 (26.7)		3~5년 31 (14.3)	
	31~40학급 85 (39.2)		6~10년 20 (9.2)	
	16~20년 37 (17.1)		11~15년 31 (14.3)	
	41학급 이상 49 (22.6)		21년 이상 76 (35.0)	
교과서 출판사	교학사 7 (3.2)	전공	가정교육 152 (70.0)	
	교학연구사 11 (5.1)		의생활 15 (6.9)	
	금성출판사 44 (20.3)		식생활 15 (6.9)	
	대한교과서 6 (2.8)		주생활 1 (0.5)	
	동화사 13 (6.0)		가정관리 25 (11.5)	
	두산 35 (16.1)	기타 9 (4.2)		
	지학사 59 (27.2)	의복구성 수업 수강경험	있다 179 (82.5)	
	천재교육 17 (7.8)		없다 38 (17.5)	
	형설출판사 25 (11.5)		5회 이하 89 (41.0)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수업경험횟수 6~10회 46 (21.2)	
	11~15회 33 (15.2)			
계	217 (100.0)	16회 이상 49 (22.6)	계	217 (10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217명의 교사이며, 조사대상자의 학교소재지는 서울이 53.9%, 경기도가 46.1%를 차지하였다. 학교설립형태는 국·공립이 79.7%이었고, 나머지 20.3%가 사립이었다. 학교유형은 남녀공학(77.4%)이 가장 많았고, 학교의 학급 수는 31 ~ 40학급(39.2%)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보면 여자가 99.1%로 대부분이며, 담당영역은 가정이 59.9%이고, 나머지는 기술·가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학급 수는 10 ~ 19학급이 57.6%로 가장 많았고, 교직경력은 21년 이상이 35.0%, 전공은 가정교육이 70.0%로 가장 많았다. 의복구성수업의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는 82.5%로 나타났고, '옷 만들기'와 '재활용' 수업경험 횟수는 5회 이하가 41.0%로 가장 많았다.

2. 조사내용 및 조사도구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에 대한 수업운영실태와 교과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총 54문항의 설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14문항, 실습실 및 교구 실태는 7문항, 수업운영실태는 25문항, 교과내용의 적절성은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강창원, 2004; 김정숙, 1997; 김미숙, 1986; 김윤숙, 1991; 신선주, 1987; 이주희, 2006)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과 기술·가정 교과서의 내용 및 현직교사의 면담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조사를 위해 수집된 총 217부의 설문자료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하였으며,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교차분석(카이제곱검증: Chi-Square 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 범위 검증(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을 위한 실습실 및 교구의 실태

실습실 및 교구의 실태는 학교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총 217명의 해당학교인 129개교를 대상으로 실습실 보유현황과 교구 상태를 파악하였다.

1) 가정과 실습실 보유현황

가정교과를 위한 실습실 보유현황은 기술실을 제외한 가정과 실습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표 2>과 같다.

조사대상 학교(129개교) 중 가정과 실습실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88.3%(114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개의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0.1%(13개교), 가정과

<표 2> 가정과 실습실 보유현황

항 목	학교설립형태		전 체	x ²	학교유형			전 체	x ²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다목적 가사실만	34 (34.3)	6 (20.0)	40 (31.0)		2 (10.0)	3 (18.8)	35 (37.6)	40 (31.0)	
조리 실습실만	56 (56.6)	18 (60.0)	74 (57.3)		17 (85.0)	9 (56.3)	48 (51.6)	74 (57.3)	
다목적 가사실 + 조리 실습실	1 (1.0)	3 (10.0)	4 (3.1)	x ² =	1 (5.0)	2 (12.5)	1 (1.1)	4 (3.1)	x ² =
다목적 가사실 + 예절실	0 (0.0)	1 (3.3)	1 (0.8)	19.900**	0 (0.0)	1 (6.2)	0 (0.0)	1 (0.8)	27.047**
조리실습실 + 예절실	6 (6.1)	0 (0.0)	6 (4.6)	df = 6	0 (0.0)	0 (0.0)	6 (6.4)	6 (4.6)	df = 12
조리실습실 + 재봉실	0 (0.0)	2 (6.7)	2 (1.6)		0 (0.0)	1 (6.2)	1 (1.1)	2 (1.6)	
가정과 실습실 없음	2 (2.0)	0 (0.0)	2 (1.6)		0 (0.0)	0 (0.0)	2 (2.2)	2 (1.6)	
계	99 (100.0)	30 (100.0)	129 (100.0)		20 (100.0)	16 (100.0)	93 (100.0)	129 (100.0)	

**p < .01.

(표 3) 보유실습실의 의생활영역 실습가능여부

항 목	보유실습실의 의생활영역 실습가능여부		계	x ²	
	가능	불가능			
학교설립형태	국·공립	50 (50.5)	49 (49.5)	99 (100.0)	x ² = 1.018 df = 1
	사립	12 (40.0)	18 (60.0)	30 (100.0)	
학교유형	남학교	4 (20.0)	16 (80.0)	20 (100.0)	x ² = 7.536* df = 2
	여학교	9 (56.2)	7 (43.8)	16 (100.0)	
	남녀공학	49 (52.7)	44 (47.3)	93 (100.0)	
전 체		62 (48.1)	67 (51.9)	129 (100.0)	

*p < .05.

실습실이 없는 학교는 1.6%(2개교)로 나타났다.

가정과 실습실 중 조리 실습실만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57.3%(74개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다목적 가사실만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31.0%(40개교)로 나타났다. 다목적 가사실과 조리 실습실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3.1%(4개교), 다목적 가사실과 예절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0.8%(1개교), 조리 실습실과 예절실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4.6%(6개교), 조리 실습실과 재봉실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6%(2개교), 가정과 실습실이 없는 학교는 1.6%(2개교)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학교에서는 조리 실습실(66.6%, 86개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리 실습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는 결과는 장정진과 윤인경(1992)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학교설립형태별로는 재봉실은 사립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립학교의 보유실습실 중 80%는 한 개의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고 20%는 두 개의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국·공립학교에서는 90.9%가 한 개의 실습실을 보유하고, 두 개의 실습실은 7.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설립형태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p < .01).

학교유형별로 재봉실은 남학교를 제외한 여학교 1개교와 남녀공학 1개교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남학교에서는 조리 실습실과 다목적 가사실을 제외한 재봉실, 예절실, 기타 가정과 실습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p < .01).

각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정과 실습실에서 의생활영역 실습가능여부는 <표 3>과 같다. 보유하고 있는 가정과 실습실에서 의생활영역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51.9%, 가능하다는 응답은 48.1%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학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실습실에서 의생활영역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80.0%로 높게 나타나고, 여학교와 남녀공학에서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학교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 < .05).

2)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 교구상태

의생활영역 교구상태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불가상태가 68.2%로써 사용가능상태 3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생활영역 교구의 사용가능여부에 따른 항목요인을 보면, 교구 상태 중 '교구의 미보유 또는 극소수량의 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으로 불량품이 많아 사용하기 불편한 상태'가 25.6%로 나타났으며, '신제품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양호한 상태'가 20.9%로 나타났다.

의생활영역 교구가 학교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의생활영역 교구가 있더라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별 교구상태는 남학교에서는 80.0%가 사용불가상태이며, 남녀공학에서는 66.7%, 여학교는 62.5%가 사용불가상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 < .01). 특히, 남학교의 경우 '교구 미보유 또는 극소 수량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65.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여학교나 남녀공학에 비해 남학교에서 의생활영역의 교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 실습에서 실습실 활용실태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 실습에서 실습실 활용에 대한 조사는 각 교사마다 수업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조사대상자인 교사 2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5>에 따르면, '옷 만들기'와 '재활용'의 실습 장소는 실습을 하지 않는 경우(10.6%)를 제외하고는 교실이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다목적 가사실(9.2%), 기타 실습실(3.7%), 조리 실습실(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봉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교실에서 실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실습실은 조리 실습실을 보유한 학교(66.6%)가 가장 많았으나 <표 2>, 실습 장소는 조리 실습실(2.8%)보다는 다목적 가사실(9.2%)이 더 높게 나타나 <표 5>, 다목적 가사실이 다른 가정과 실습실에 비해 '옷 만들기'와 '재활용' 실습을 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

〈표 4〉 의생활영역 교구상태

항 목	학교설립형태			전 체	x ²	학교유형			전 체	x ²
	국·공립	사립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사용 가능 상태	신제품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	6 (6.1)	3 (10.0)	9 (7.0)	x ² =	2 (10.0)	1 (6.2)	6 (6.4)	9 (7.0)	x ² =
	신제품은 아니지만 사용하는데 지장 없는 양호한 상태	23 (23.2)	4 (13.4)	27 (20.9)		1 (5.0)	5 (31.3)	21 (22.6)	27 (20.9)	
	교구기능에는 지장 없으나 관리소홀로 청결하지 못한 상태	4 (4.0)	1 (3.3)	5 (3.9)		1 (5.0)	0 (0.0)	4 (4.3)	5 (3.9)	
사용 불가 상태	질이 저하된 제품으로 불량품 많아 사용하기 불편한 상태	4 (4.0)	1 (3.3)	5 (3.9)	4,100 df = 6	0 (0.0)	0 (0.0)	5 (5.4)	5 (3.9)	22,413** df = 12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상태	27 (27.3)	6 (20.0)	33 (25.6)		2 (10.0)	2 (12.5)	29 (31.2)	33 (25.6)	
	대부분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8 (8.1)	2 (6.7)	10 (7.7)		1 (5.0)	3 (18.7)	6 (6.4)	10 (7.7)	
	교구 미보유 또는 극소 수량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27 (27.3)	13 (43.3)	40 (31.0)		13 (65.0)	5 (31.3)	22 (23.7)	40 (31.0)	
계	99 (100.0)	30 (100.0)	129 (100.0)		20 (100.0)	16 (100.0)	93 (100.0)	129 (100.0)		

**p < .01.

〈표 5〉 보유실습실에 따른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실습장소

항 목	보유 실습실						실습실 없음	전 체
	다목적 가사실	조리 실습실	다목적 가사실+ 조리 실습실	다목적 가사실+ 예절실	조리 실습실 +예절실	조리 실습실 +재봉실		
교 실	41 (62.1)	95 (75.4)	5 (100.0)	1 (100.0)	11 (91.7)	2 (100.0)	5 (100.0)	160 (73.7)
실습 장소	다목적가사실	20 (30.3)	0 (0.0)	0 (0.0)	0 (0.0)	0 (0.0)	0 (0.0)	20 (9.2)
	조리실습실	0 (0.0)	6 (4.8)	0 (0.0)	0 (0.0)	0 (0.0)	0 (0.0)	6 (2.8)
	기타실습실	0 (0.0)	7 (5.5)	0 (0.0)	0 (0.0)	1 (8.3)	0 (0.0)	8 (3.7)
	실습안함	5 (7.6)	18 (14.3)	0 (0.0)	0 (0.0)	0 (0.0)	0 (0.0)	23 (10.6)
계	66 (100.0)	126 (100.0)	5 (100.0)	1 (100.0)	12 (100.0)	2 (100.0)	5 (100.0)	217 (100.0)

된다. 이상의 결과는 의생활영역의 실습이 대부분 교실의 책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강혜정과 김용숙(1992), 신선주(1987)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이며, 지난 20년간 의생활영역 실습을 위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수업운영실태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수업운영실태는 가정과 교

사 2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실습여부 및 실습내용, 실습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중 실습운영실태는 '옷 만들기과 재활용'의 주된 실습 내용인 '옷 만들기' 실습을 대상으로 하였고, '옷 만들기' 실습을 하는 14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실습여부 및 실습내용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실습여부 및 실습내용 조사

〈표 6〉 학교유형별 '옷 만들기'와 '재활용' 실습여부 및 실습내용

항 목	학교유형			전 체	x ²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실습여부 및 실습내용	두 가지 모두 미실습	4 (17.4)	0 (0.0)	19 (11.3)	23 (10.6)	x ² = 23.953** df = 10
	두 가지 모두 실습	1 (4.3)	3 (11.5)	3 (1.8)	7 (3.2)	
	'옷 만들기' 만 실습	8 (34.8)	18 (69.3)	110 (65.5)	136 (62.7)	
	'재활용' 만 실습	2 (8.7)	3 (11.5)	7 (4.2)	12 (5.5)	
	간단한 소품 만들기	6 (26.1)	0 (0.0)	20 (11.9)	26 (12.0)	
	기초 바느질	2 (8.7)	2 (7.7)	9 (5.3)	13 (6.0)	
	계	23 (100.0)	26 (100.0)	168 (100.0)	217 (100.0)	

**p < .01.

〈표 7〉 보유실습실의 의생활영역 실습가능여부와 교구상태에 따른 '옷 만들기'와 '재활용' 실습여부 및 실습내용

항 목	보유실습실의 의생활 실습가능여부		전 체	x ²	의생활 교구상태		전 체	x ²
	가능	불가능			사용가능	사용불가		
	두 가지 모두 미실습	8 (7.9)	15 (12.9)	23 (10.6)	x ² = 5.167 df = 5	3 (4.5)	20 (13.3)	23 (10.6)
두 가지 모두 실습	3 (3.0)	4 (3.5)	7 (3.2)	2 (3.0)		5 (3.3)	7 (3.2)	
'옷 만들기' 만 실습	71 (70.2)	65 (56.0)	136 (62.7)	49 (73.1)		87 (58.0)	136 (62.7)	
'재활용' 만 실습	5 (5.0)	7 (6.0)	12 (5.5)	2 (3.0)		10 (6.7)	12 (5.5)	
간단한 소품 만들기	10 (9.9)	16 (13.8)	26 (12.0)	8 (11.9)		18 (12.0)	26 (12.0)	
기초 바느질	4 (4.0)	9 (7.8)	13 (6.0)	3 (4.5)		10 (6.7)	13 (6.0)	
계	101 (100.0)	116 (100.0)	217 (100.0)	57 (100.0)		160 (100.0)	217 (100.0)	

결과는 〈표 6〉, 〈표 7〉에 나타내었다. '옷 만들기'만을 실습한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간단한 소품 만들기' (12.0%), 실습을 하지 않고 '이론 수업' (10.6%), '기초바느질'로 실습 대체(6.0%), '재활용'만 실습 (5.5%), 옷 만들기'와 '재활용' '두 가지 모두 실습'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옷 만들기' 실습을 하는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으며, 〈표 6〉에 따르면 남학교에서는 '옷 만들기' 실습을 하는 것이 39.1%로 나타났고, 26.1%는 '간단한 소품 만들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면, 여학교에서는 80.8%, 남녀공학에서는 67.3%가 '옷 만들기' 실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 < .01).

남학교에서는 옷 만들기 실습 다음으로 간단한 소품 만들기(26.1%), 이론수업(17.4%), 기초바느질(8.7%), 재활용실습 (8.7%)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여학교에서는 옷 만들기 실습 다음으로 재활용실습(11.5%), 기초바느질(7.7%)의 순위로 나타났다. 남녀공학에서는 옷 만들기 실습 다음으로 간단한 소품 만들기(11.9%), 이론수업(11.3%), 기초바느질(5.3%), 재활용실습(4.2%)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7〉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실습실의 사용가능여부와 의생활 영역 교구상태에 따라 '옷 만들기'와 '재활용' 실습 여부 및 실습내용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습실과 교구의 상태가 의생활 실습의 유무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8〉 '옷 만들기' 실습의 제작물 형태 및 견본제시 여부

항 목		N(%)
제작물 형태	실제사이즈의 옷감을 이용한 제작물	76 (53.1)
	1/2축소사이즈의 옷감을 이용한 제작물	65 (45.5)
	실제사이즈의 지류를 이용한 제작물	1 (0.7)
	1/2축소사이즈의 지류를 이용한 제작물	1 (0.7)
견본 제시 여부	완성품 하나만 제시	72 (50.3)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제시	60 (42.0)
	어려운 부분만 제시	5 (3.5)
	제시하지 않음	4 (2.8)
	기 타	2 (1.4)
계		143 (100.0)

옷 만들기 실습에서 미실습 요인으로는 실습시간 부족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6.2%로 나타났고, 시설과 교구의 부족이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강혜숙 과 윤인경(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 시간적인 문제보다 실험 실습기구의 부족으로 가정과 실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옷 만들기' 실습운영실태

'옷 만들기' 실습운영실태는 217명의 교사 중 '옷 만들기' 실습을 하는 143명(65.9%)의 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옷 만들기' 실습의 제작물 형태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실제 사이즈의 옷감을 이용한 제작물이 53.1%, 실제의 1/2축소 사이즈의 옷감을 이용한 제작물이 45.5%로 나타났다. 대부분 옷감을 이용하여 실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사이즈의 옷감을 이용한 제작물을 제외한 46.9%가 축소 사이즈의 옷감을 이용하여 제작하거나 옷감 외의 소재로 제작한다고 나타났다. 옷을 만들어 실제 착용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활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옷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교과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견본제시여부를 보면, 대부분 견본을 제시(95.8%)하고 있었으며 완성품 하나만 제시하는 경우는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제시하는 경우는 42.0%, 어려운 부분만 제시하는 경우는 3.5%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만드는 과정을 하나씩 제시하는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각 단계마다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에게 단계를 설명해주며 진행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옷 만들기' 실습의 세부항목별 수업운영방식은 〈표 9〉와 같다. 디자인, 치수재기, 본뜨기, 옷감의 재료와 준비, 마름질, 바느질, 재봉틀 사용법, 마무리의 8가지 영역의 수업방식

〈표 10〉 실습준비물 상태 및 실습준비물 선정 기준

항 목		N(%)
실습준비물 상태	재단 된 옷감, 재료	48 (39.0)
	옷본, 옷감, 재료	47 (38.2)
	옷감, 재료	15 (12.2)
	옷본이 그려진 옷감, 재료	13 (10.6)
계		123 (100.0)
실습준비물 선정 기준	실습시간	79 (64.2)
	실습비용	26 (21.1)
	중요도	13 (10.6)
	학생들의 흥미도	5 (4.1)
계		123 (100.0)

과 실습의 평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표 9〉에 따르면, 디자인 수업방식은 교과서 내용으로만 수업하는 경우가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39.2%로 나타났다. 현행 교과서의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에서 디자인 부분 내용의 비율은 낮으며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교과서도 있고, 의복 마련 계획과 구입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어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 같다.

치수재기의 수업방식은 학생 개인의 실습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시범실습이 30.1%, 이론 설명만이 14.0%,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8.4%를 차지하였다.

본뜨기 수업방식은 제도하지 않고 교과서의 부록 또는 구매 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도는 따로 실습 해보고 제작할 때는 교과서의 부록 또는 구매 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28.7%로 나타났다. 실제크기로 제도하여 그 본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는 14.0%, 축소 본으로 제도하여 그 본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수업 시간의 부족으로 교과서 부록이나 구매 본을 이용한다고 보며, 제도를 해보고 나와 있는 본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는 본뜨기의 내용을 중요시 생각하여 실습을 시행하고, 평가나 활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와 있는 본을 이용하여 제작한다고 사료된다.

옷감의 재료와 준비는 학교에서 실습준비물을 단체로 구매하는 경우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별적으로 실습준비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16.1%로 나타나 실습준비물을 구입하는 것이 86.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4.0%만이 옷감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준비한다고 하였다. 실습의 시간적인 문제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실습준비물을 구입하여 실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구매하는 실습준비물의 완성도 상태와 실습준비물의 선

〈표 9〉 '옷 만들기' 실습의 세부항목별 수업운영방식

항 목		N(%)
디자인	교과서 내용으로만 수업	68 (47.5)
	수업 안함	56 (39.2)
	교과서 원형을 바탕으로 취향에 따라 장식적 요소 가미	19 (13.3)
	계	143 (100.0)
치수제기	학생 개인 실습	68 (47.5)
	교사 시범 실습	43 (30.1)
	교과서의 그림을 통해 이론만 설명	20 (14.0)
	수업 안함	12 (8.4)
	계	143 (100.0)
본뜨기	제도하지 않고 교과서 부록 또는 구매 본 이용	71 (49.6)
	제도는 따로 해보고, 만들기는 교과부록 또는 구매 본 이용	41 (28.7)
	실제크기로 제도하여 만들	20 (14.0)
	실제크기의 1/2로 제도하여 만들	11 (7.7)
	계	143 (100.0)
옷감재료와 준비	학교에서 실습준비물세트 단체구매	100 (69.9)
	개별적으로 실습준비물세트 개인구매	23 (16.1)
	옷감 선택에서부터 본인이 직접 준비	20 (14.0)
	계	143 (100.0)
마름질	옷본과 옷감 또는 반 마름질된 실습준비물로 실습	95 (66.4)
	마름질 다 된 실습준비물 구입으로 이론만 수업	40 (28.0)
	마름질이 다 된 실습준비물 구입으로 수업 안함	8 (5.6)
	계	143 (100.0)
바느질	학교에서 손바느질로 함	131 (91.6)
	학교에서 손바느질과 재봉틀을 병행함	8 (5.6)
	학교에서 손바느질로 시범을 보인 후 가정에서 손바느질로 해도도록 함	3 (2.1)
	기타 (접착제 등으로 고정)	1 (0.7)
	계	143 (100.0)
재봉틀사용법	수업 안함	88 (61.5)
	교과서 그림을 통해 이론수업 함	37 (25.9)
	재봉틀로 교사시범실습으로 대체	11 (7.7)
	재봉틀로 분단별로 실습	6 (4.2)
	재봉틀로 학급전원이 한 번씩 직접 실습	1 (0.7)
	계	143 (100.0)
마무리	교과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집에서 다림질	71 (49.6)
	교과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마침	41 (28.7)
	교과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교실에서 다림질	27 (18.9)
	수업 안함	4 (2.8)
	계	143 (100.0)
평가	수업 중 평가와 완성작품 평가를 종합하여 교사 평가	129 (90.2)
	수업 중 평가와 완성작품 평가를 종합하여 교사평가 후 학생평가 반영	14 (9.8)
	계	143 (100.0)

정 기준에 대해서는 〈표 10〉에서 나타내고 있다. 일정규격으로 재단까지 된 옷감과 재료가 있는 실습준비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정규격의 옷본, 옷감과 재료가 있는 실습준비물 구입이 38.2%, 옷감과 재료만 있는 실습준비물 구입은 12.2%, 옷본이 그려져 있는 옷감과 재료가 있는 실습준비물 구입은 10.6%로 나타났다. 단계별 완성도에 차이가 있는 실습준비물의 선정 기준은 실습시간 정도에 따른 요인이 64.2%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실습시간의 부족으로 마름질이 다 된 실습준비물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옷본이 옷감에 그려져 있는 실습준비물은 크게 선호도를 보이지 않았다. 옷본이 그려진 옷감의 실습준비물은 재단 작업만 하면 되므로 중요도 면에서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아니므로 시간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마름질이 다 된 실습준비물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중요도를 고려하여 옷본, 옷감, 재료가 있는 실습준비물을 구입한다고 생각된다.

마름질 수업방식은 옷본과 옷감 또는 반 마름질된 옷감으로 실습을 하는 경우가 66.4%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론 수업만 하는 경우가 28.0%,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5.6%로 나타났다. <표 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옷본과 옷감, 재료가 있는 실습준비물과 옷본이 그려져 있는 옷감과 재료를 구입하는 경향이 많아 옷감 자체 또는 반 마름질된 옷감으로 수업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재단까지 다 되어 마름질이 다 된 실습준비물의 구입으로 인해 마름질 부분을 이론수업으로 진행하고, 일부는 마름질이 다 된 실습준비물을 구입하므로 마름질에 대해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

바느질 수업방식은 학교에서 손바느질로 한다는 응답이 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봉틀 등의 재봉에 필요한 교구와 장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요인과 학생들의 실습 능력, 재봉틀 사용법 습득에 대한 시간상의 요인, 수업지도의 편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손바느질로 실습을 하고 있지만, 교과 내용상에는 초등학교 실과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으로 간주하고 대부분 손바느질 방법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과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수업방식은 수업 안함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과서 그림을 통해 이론 수업을 하는 경우는 25.9%, 교사의 시범실습은 7.7%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분단실습이 4.2%, 개별실습은 0.7%에 불과하였다. 시간, 장소, 교구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실생활에서의 활용도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또한 교과서별로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내용유무에 차이가 있어 이론으로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환경적인 요인과 실생활의 활용, 학습요구를 고려하여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마무리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집에서 다림질을 하는 경우가 4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는 경우가 28.7%를 나타내었다.

평가는 교사가 수업 중 평가와 완성 작품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9.8%는 수업 중 평가와 완성 작품의 평가를 종합하여 교사가 평가한 후 학생 평가를 반영한다고 나타났다.

3.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적절도 및 개선 요구사항

1)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적절도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적절도에서는 옷 만들기의 8가지 세부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적절도의 척도는 학생들의 수준에 각 항목의 수준이 적절하지, 교과서

<표 11>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적절도 M(S,D)

항 목	내용수준 적절도	그림·설명 적절도	실생활 도움정도
디자인	2.94 (0.91)	2.99 (0.89)	2.99 (0.98)
치수제기	3.57 (0.74)	3.41 (0.76)	3.56 (0.88)
본뜨기	3.12 (0.84)	3.16 (0.78)	2.76 (0.96)
옷감재료와 준비	3.15 (0.79)	3.04 (0.72)	3.19 (0.94)
마름질	3.21 (0.79)	3.18 (0.83)	2.93 (0.96)
바느질	3.35 (0.89)	3.13 (0.88)	3.95 (0.79)
재봉틀	2.19 (0.94)	2.41 (0.98)	2.54 (1.17)
마무리	3.36 (0.74)	3.14 (0.70)	3.44 (0.89)
전 체	3.11 (0.56)	3.06 (0.61)	3.17 (0.70)

의 그림과 설명 자료가 적절하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표 11>에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내용 수준(3.11), 그림과 설명자료(3.06), 실생활 도움정도(3.17)에 대한 교과내용 적절도는 평균 3.0이상으로 나타나 보통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주희(2006)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정영역 실험·실습 내용 수준이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결과를 보인다.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내용수준의 적절도는 평균 3.11로 나타나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치수제기(3.57)와 마무리하기(3.36), 바느질하기(3.35), 마름질하기(3.21)는 학생들의 수준에 대체로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디자인(2.94)과 재봉틀(2.19)의 내용 수준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그림과 설명 자료의 적절도에서는 치수제기가 평균 3.41로 적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름질하기(3.13), 본뜨기(3.16), 마무리하기(3.14), 바느질하기(3.13), 옷감 재료와 준비하기(3.04)는 보통이상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었다. 교과서의 바느질하기 부분은 기초 손바느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이상의 점수가 나온 것은 바느질 순서가 단계별로 그림 자료와 함께 교과서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디자인하기(2.99)와 재봉틀 사용법(2.41)은 보통이하의 점수를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항목별 실생활 도움정도를 보면, 바느질하기가 평균 3.95로 가장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치수제기(3.56), 마무리하기(3.44), 옷감 재료와 준비(3.19)의 순서로 보통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디자인하기(2.99), 마름질하기(2.93), 본뜨기(2.76), 재봉틀하기(2.54)는 보통이하로 실생활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은 인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봉틀 사용법은 8가지 항목 중 실생활의 도움

〈표 12〉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분량과 시수 적절도 M(S,D)

항 목	실습형태			평균	F
	옷 만들기 N = 143	실습 안함 N = 23	재활용, 소품, 기초바느질 N = 51		
분 량 적절도	2.90 _a (0.962)	2.39 _b (0.941)	2.53 _{ab} (0.833)	2.76 (0.948)	F = 4.868**
시수 적절도	2.64 _a (0.996)	2.26 _{ab} (0.810)	2.20 _b (0.939)	2.50 (0.982)	F = 4.813**
전 체	2.77 _a (0.919)	2.33 _b (0.860)	2.36 _b (0.831)	2.63 (0.911)	F = 5.350**

주. 같은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Duncan 검증결과 $p < .05$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 $p < .01$.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외의 내용수준, 그림과 설명 자료의 적절도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나 재봉틀에 대한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분량과 시수의 적절도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분량과 시수의 적절도에 관한 내용은 〈표 12〉에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통이하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분량과 시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이주희(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분량과 시수의 적절도에서 실습형태별 차이를 보면, 옷 만들기 실습을 하지 않는 경우(2.33)와 재활용 또는 소품, 기초바느질 실습으로 대체하는 경우(2.36)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옷 만들기 실습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옷 만들기 실습을 하는 경우(2.77)가 실습을 하지 않거나(2.33) 재활용 또는 소품, 기초바느질 실습으로 대체하는 경우(2.36)보다 분량과 시수에 대해 좀 더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분량과 시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옷 만들기 대신 기초바느질이나 간단한 소품 만들기로 대체하여 실습을 하거나 실습을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개선요구사항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개선요구사항은 〈표 13〉에 나타내고 있다. 교과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은 전체 교사 217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재봉틀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은 교과내용 개선사항 중 재봉틀 내

〈표 13〉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개선요구사항(중복응답)

항 목		N(%)
교과 내용 개선 사항	기초바느질 방법 제시	138 (24.2)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내용 개선	129 (22.6)
	사진이나 그림 자료의 보충	91 (16.0)
	자신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의 선택방법 내용 첨가	78 (13.7)
	유행에 맞는 디자인 제시	77 (13.5)
	본뜨기 설명 상세히 제시	39 (6.8)
	본뜨기 그림 자료의 크기 확대	18 (3.2)
계		570 (100.0)
재봉틀 내용 개선 사항	내용의 삭제	64 (48.5)
	그림의 설명 상세히 제시	41 (31.0)
	그림 자료의 추가	14 (10.6)
	그림 자료의 크기 확대	10 (7.6)
	기타	3 (2.3)
계		132 (100.0)

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129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하여 조사되었다.

〈표 13〉에 따르면 교과내용 개선사항 중 기초바느질 방법 제시가 24.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는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내용 개선이 22.6%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의 보충(16.0), 자신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의 선택방법 내용 첨가(13.7%), 유행에 맞는 디자인 제시(13.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의 선택방법은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 단원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낮은 요구가 나타난다고 보며,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기초바느질에 대한 개선과 재봉틀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봉틀 내용에 대한 개선에 대한 세부항목을 보면, 내용 삭제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교의 시간적, 환경적 여건의 요인과 실생활의 활용이나 필요가 낮은 요인으로 재봉틀에 대한 내용의 필요가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실습의 체험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사고력과 창의성 육성을 위한 실천 교과로서의 기술·가정교과 내용의 구축을 위해, 의생활영역 실습 단원인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원의 수업운영실태와 교과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옷 만들기과 재활용' 단

원을 위한 실습실 및 교구의 보유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의 수업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현 교육과정 및 수업 수행 여건에 교과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차기 교과내용 개편과 기술·가정교과의 내용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술·가정 의생활영역을 위한 실습실 및 교구의 보유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가정과 실습실은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많았으며, 실습 가능한 실습실이 있더라도 많은 학교가 교실에서 실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생활영역 교구 상태를 보면 의생활영역의 교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교구가 있더라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학교가 많았다. 따라서 가정과 교사는 실습이 가능한 실습실을 갖추는데 힘써서 실습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실습을 위해 마련된 실습실의 적극적인 활용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기술·가정교과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의 수업운영실태는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의 실습여부 및 실습내용, '옷 만들기' 실습의 운영실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의 실습여부 및 실습내용에서는 '옷 만들기' 실습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남학교와 남녀공학에서는 '옷 만들기' 실습 다음으로 '간단한 소품 만들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은 옷을 만드는 실습보다는 좀 더 간소화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실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습 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실습준비물을 구입하여 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구매하는 실습준비물의 상태는 일정규격으로 재단까지 된 옷감과 재료가 있는 실습준비물이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마름질까지의 과정이 간소화되어 학생들의 실습이 단계별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어진 시수에서 효율적인 실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옷 만들기 실습과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습 보조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실습 단계를 실물로 보여주는 동영상 자료 또는 모형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학습에 바람직한 실습준비물의 제작과 제공을 위해 실습준비물제작 업체의 노력과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기술·가정교과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적절도와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는, 내용 수준의 적절도, 그림과 설명 자료의 적절도, 실생활 도움정도로 살펴 보았으며 적절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세부 항목 중 재봉틀 사용법은 내용수준과 그림 및 설명 자료, 실생활 도움정도의 적절도 모두에서 가

장 낮게 나타난 반면, 바느질하기는 대체로 높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옷 만들기'와 '재활용' 단원의 교과내용 개선요구사항은 바느질하기가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연계되어 기초바느질 방법의 제시가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내용 개선이 차지하였다. 재봉틀 내용 개선에 대한 세부항목은 내용삭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시간적, 환경적 요인과 실생활의 활용이나 필요가 낮은 요인으로 인해 재봉틀에 대한 내용의 필요가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실습운영실태의 결과에서도 많은 학교에서 바느질 방법으로 손바느질을 택하고 있었고, 재봉틀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 내용상에는 초등학교 실과수업에서 배운 것으로 간주하고 기초바느질 방법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거의 수업하고 있지 않는 재봉틀 사용법에 대해서는 교과서 내용에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정도와 요구도가 높은 기초바느질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반해, 실생활 활용과 요구도가 낮은 재봉틀 사용법에 대한 내용삭제에 관한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이나 실습형태 등의 집단변인들의 비율이 고르지 못하여 그에 따른 비교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들에 따른 실태와 요구를 연구하여 종합적인 파악이 이루어 집도 필요하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의 내용체계 확립과 차기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서 집필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의 수준과 수업 수행 여건에 맞는 교과내용으로의 개선과 실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습 보조 자료의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강미향(2005).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의생활 단원의 내용 분석과 수업만족도 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창원(2004). 대구·경북지역 기술·가정 담당 교사의 수업운영 실태 조사와 개선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숙, 윤인경(1993). 중등학교 가정과 실험 실습 교구·설비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5(1), 61-85.

- 강혜정, 김용숙(1992). 전라북도 고등학교 가정·가사 과목의 서양의복구성 교육실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57-75.
-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해설서*. 기술·가정.
- 김경숙(1997). *중학교 새 가정교과 실험·실습시간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1986). *중학교 가정과의 재봉실습에 관한 조사연구-블라우스 만들기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숙(1991). *중학교 가정과 실습실 시설 및 운영 실태 조사 연구-서울시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일록, 이은희(2003). *의생활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실천도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3), 89-103.
- 성화경(1994). *중·고등학교 가정과목 의생활 분야 교육내용 연구-학생, 교사, 전공 교수의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61-72.
- 손진숙(2004). *기술·가정교과 내의 의생활영역에 대한 인식, 필요도, 실천도, 학습요구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선, 두경자, 홍희영(2006).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실험·실습 운영에 관한 학습자 인식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29-45.
- 신동순, 김상희, 오화자, 정효숙, 정혜경(1997). *중학교 남녀 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71-82.
- 신선주(1987). *중학교 가정과 의생활 교육과정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중학교 2학년 가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2006).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중 가정영역의 실험실습에 대한 교사의 인식-의식주 내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진, 윤인경(1992). *중학교 가정과 실험·실습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77-86.

(2007년 9월 20일 접수, 2007년 11월 13일 채택)